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 (*Platypus koryoensis*)의 기주 선호성 및 수내 분포

정영진, 권영대¹, 김경희, 최광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¹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참나무류가 고사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1980년대 들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참나무류의 대규모 쇠퇴 및 고사 현상이 발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참나무류에 문제가 될 만한 병해충이 발생된 예가 거의 없었으나 2004년에 경기 성남, 남양주 등 15개 시군과 강원 철원, 화천, 전북 무주 등에서 참나무시들음병이 새로이 발견되었다. 본 병은 일본에서 긴나무좀의 일종인 *Platypus quercivorus*가 매개하는 *Raffaelea quercivora*에 의한 병과 유사한 피해증상을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개충은 광릉긴나무좀(*P. koryoensis*)이고 일본의 피해수종이 주로 물참나무(*Quercus crispula*)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갈나무(*Q. mongolica*)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종별 긴나무좀의 침입율을 보면 신갈나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참나무에는 긴나무좀의 침입공이 전혀 없었고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에는 낮은 비율의 침입공이 발견되었다. 긴나무의 침입율이 가장 높았던 신갈나무도 실제 고사율은 2.1%밖에 되지 않아 일본에서 물참나무의 고사율이 약 40%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시들음병의 병원성은 일본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나무좀의 침입공은 지제부로부터 50cm까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제부로부터 3m까지에는 89.8%가 분포되어 있다. 금후 병원균의 종명 동정과 역학조사, 피해분포 정밀 조사, 매개충 생태 구명, 방제기술 개발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